

## 생명의 경외심이 필요한 때



**김명훈**  
세브란스병원 사회사업팀장

여러 해 전의 일이다. 울릉도에서 오징어 배를 타고 어부로 살아오던 서른여덟 살의 한 청년이 백혈병으로 입원하였다. 갑게 그을린 얼굴과 혈색 짙은 의모로 보아서는 아픈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본래 활력 있는 생활을 해 오던 터라 병은 깊어진 상태에서 병원을 찾았다. 일곱 달 여의 치료 끝에 결국은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을 두고 떠나기 싫어서일까? 아니면 마지막 순간의 아쉬움이나 고통 때문이었을까? 너무나 세계 이물 악물었던 터에 이가 잇몸에 모두 묻혀 있었다.

그런가 하면, 여섯 살 난 아들의 골수암을 늦게 발견하게 되어 암세포가 척추까지 퍼져 걷지도 못하는 아들을 휠체어에 태우고 다니며 비지땀을 흘리는 어머니도 있다. 남편이 암으로 사망하고 난 후 아들과 둘이서 영구 임대아파트에 살면서 밤늦게까지 가방 제조공장에서 일하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던 터에 유일한 희망이던 아들마저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되었으니 그 절망감은 가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그러나 그 어머니는 한번도 웃음 없는 얼굴로 사람을 대하는 법이 없다. 아이와도 늘 희망 어린 대화를 나누며 휠체어를 밀고 시간 날 적마다 함께 산책한다. 두말할 나위 없이 아이는 몸은 비록 아프고 힘들지만 얼굴은 밝고 천진스럽다. 병원은 이렇게 늘 생의 끈을 놓치지 않기 위해 많은 사람

들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경외스런 곳이다.

병원에서 이러한 사람들을 보며 생활하는 필자로서는 근래 들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자살사태가 안타깝기 그지 없다. 탄성체가 단성의 한계를 넘는 경우 탄성을 잃고 파괴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내적 갈등이 감내할 수 있는 한계를 넘는 경우 이러한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되거나 정신적인 병리현상을 보이게 된다. 물론 자살의 원인은 사회적 심리적 생리적 유전적 측면 등 다양한 원인이 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에서 마치 도미노처럼 이어지는 자살의 현상은 사회적 해체에 가장 큰 원인이 있는 게 아닌가 싶다.

개인이 속해있는 가정이 해체되고 있고, 사회적으로나 국가적 차원에서도 응집력을 잃고 있다. IMF 재정위기의 커다란 충격이 닥쳤을 때는 모두 합심해서 이기자는 결속이 있었기에 잠작스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즈음과 같은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강한 가부장적 전통으로 결속되었던 우리의 전통사회에서도 볼 수 없었던 현상들이다.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적인 기강을 회복하여 서로 견속하여 응집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마음의 갈등이 심할 때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가까운 사람 또는 전문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대화를 통해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중압감을 털어내야 감정적 단성의 한계를 유지할 수 있다. 개인의 어려움을 도울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복지 인프라의 구축 또한 국가적인 주요 과제라 하겠다.